

諺簡에 投影된 秋史의 人間論

金 一 根*

目 次	
I. 秋史 諺簡의 總括	2. 理智와 情感의 共有者
1. 發表의 經緯와 決算	3. 孝誠과 慈愛의 宗孫
2. 未公開 資料의 原文	4. 敬妻와 愛隣의 선비
II. 諺簡에 投影된 人間 秋史	III. 結 語
1. 大膽剛直한 太陰人	

I. 秋史 諺簡의 總括

1. 發表의 經緯와 決算

1979년 1월 《文學思想》誌 76호에 처음으로 秋史 金正喜의 한글편지(諺簡) 10通을 필자가 처음으로 發掘 發表하여 世人을 놀라게 한 바가 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추적하고 考證하여 1982년 同誌 4·5월 114·115호에 걸쳐서 秋史의 祖母·慈堂·生父인 魯敬 기타 家族(114호)과 秋史 本人의 친필 편지 11通(115호)을 또 발표하였다.

계속한 작업의 결과를 1986년 6월 3일(陰)이 秋史의 탄신 200주년임을 계기로

* 建國大學校 國語國文學科 教授, 文學博士

삼아, 그해 7월호(165호)에 다시 12通을 발표함으로써 일단 마무리를 지은 셈이다.

現在 秋史 諺簡 33通을 통괄해 보면, 夫人에게 쓴 것이 31通이고 子婦에게 쓴 것이 2通이며, 그 중에 편지 봉투가 12通이 보존되지 못한은 유감된 일이나, 秋史의 親筆인 한글 筆蹟이 이 정도로 남아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으며, 특히 우리 國語國文學上으로 보아서는 지극히 다행한 일이다.

그 밖에 發信處, 受信處 및 사람, 年代別 통계를 일람토록 다음에 2종의 도표로 정리를 하였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秋史 諺簡의 文獻的 가치는 이미 발표한 紙面¹⁾을 통해서 斷片的으로 言及한 것이 있고, 筆者의 最近 論著인 《諺簡의 研究》²⁾에 21通의 原文과 解題를 붙인 바가 있으나, 總括된 33通의 資料 全般에 걸친 研究 分析의 결과는 가까운 장래에 정리가 될 것이다.

本稿에서는 우선 最近에 發表한 12通의 原文을 紹介하여 資料上의 整理作業을 완수하기로 하고, 秋史研究의 가장 基本作業인 그의 人間探求를 現存 諺簡을 통하여 試圖하려는 바이다. 그의 漢文書簡을 포함해서 모든 書簡文의 종합적인 研究結果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表1〉 秋史 諺簡(33通)의 總整理

件名 (年代順)	發信處·日字	受信處·人	《文學思想》 表示	〈諺簡의 研究〉 表示	備考
第 1 信	大邱監營戊寅 2.11	서울, 夫人	第 1 信(76號)	第 1 信	1818, 33 세
第 2 信	壯桐本家 " 3.27	大邱, 夫人	第 11 信(115號)	第 2 信	同 上
第 3 信	同 上 " 4. 7	同 上	第 22 信(165號)		同 上
第 4 信	同 上 " 4.26	同 上	第 2 信 (76號)	第 3 信	同 上
第 5 信	同 上 " 6. 4	同 上	第 23 信(165號)		同 上
第 6 信	同 上 " 7. 7	同 上	第 24 信(165號)		同 上
第 7 信	同 上 " 7. 晦日	同 上	第 12 信(115號)	第 4 信	同 上
第 8 信	同 上 " 8. 5	同 上	第 25 信(165號)		同 上
第 9 信	同 上 " 8. 晦日	同 上	第 26 信(165號)		同 上
第 10 信	同 上 " 9.26	同 上	第 13 信(115號)	第 5 信	同 上

1) 拙稿: 《文學思想》 76, 114, 115, 165호.

拙稿: “秋史 金正喜의 人間面의 考察”, 《省谷論叢》 4집, 1983.

拙稿: “편지로 診斷한 人間秋史”, 《全國文化院》 10·11合輯, 1986.

2) 建國大學校 出版部刊, 1986. 6.

第 11 信	同 上 "	10. 5	同 上	第 14 信(115號)	第 6 信	同 上
第 12 信	同 上戊子	4. 18	溫湯, 夫人	第 3 信 (76號)	第 7 信	1828, 43 세
第 13 信	同 上 "	4. 19	同 上	第 4 信 (76號)	第 8 信	同 上
第 14 信	同 上己丑	4. 13	同 上	第 27 信(165號)		1829, 44 세
第 15 信	同 上 "	4. 17	同 上	第 16 信(115號)	第 11 信	同 上
第 16 信	平壤監營 "	11. 3	서울, 夫人	第 15 信(115號)	第 9 信	同 上
第 17 信	同 上 "	11. 26	同 上	第 5 信 (76號)	第 10 信	同 上
第 18 信	古今島 辛卯	11. 9	同 上	第 17 信(115號)	第 12 信	1831, 46 세
第 19 信	濟州庚子	10. 5(?)	禮山, 夫人	第 18 信(115號)	第 13 信	1840, 55 세
第 20 信	同 上辛丑	3. (閏)20	同 上	第 19 信(115號)	第 14 信	1841, 56 세
第 21 信	同 上 "	4. 初旬	同 上	第 6 信 (76號)	第 15 信	同 上
第 22 信	同 上 "	4. 20	同 上	第 20 信(115號)	第 16 信	同 上
第 23 信	同 上 "	6. 22	同 上	第 28 信(165號)		同 上
第 24 信	同 上 "	7. 12	同 上	第 29 信(165號)		同 上
第 25 信	同 上 "	10. 1	同 上	第 7 信 (76號)	第 17 信	同 上
第 26 信	同 上壬寅	1. 10	同 上	第 30 信(165號)		1842, 57 세
第 27 信	同 上 "	3. 4	同 上	第 8 信 (76號)	第 18 信	同 上
第 28 信	同 上 "	4. 9	同 上	第 9 信 (76號)	第 19 信	同 上
第 29 信	同 上 "	10. 3	同 上	第 31 信(165號)		同 上
第 30 信	同 上 "	11. 14	同 上	第 21 信(115號)	第 20 信	同 上
第 31 信	同 上 "	11. 18	同 上	第 10 信(76號)	第 21 信	同 上
第 32 信	同 上癸卯	10. 10	禮山, 子婦	第 32 信(165號)		1843, 58 세
第 33 信	同 上甲辰	3. 6	同 上	第 33 信(165號)		1844, 59 세
33			夫人(31) 子婦(2)	76 號 (10) 115 號 (11) 165 號 (12)	原文轉載	

<表2>

發 信 處	受信處 및 受取人	通 數	年 齡 (備考)
大 邱 監 營	壯 洞 本 家 夫 人	1	33 세
壯 洞 本 家	大 邱 監 營 夫 人	10	33 "
同 上	溫 湯 (親 家) 夫 人	2	43 "
平 壤 監 營	壯 洞 本 家 夫 人	4	44 "
古 今 島	同 上	1	46 "
濟 州 島	禮 山 本 家 夫 人	13	55(1), 56(6), 57(6)
同 上	禮 山 本 家 子 婦	2	58(1), 59(1)

2. 未公開 資料의 原文

전기 일람표에서 알 수 있듯이 총33통 중 《諺簡의 研究》에 掲載한 21信만은 原文이 紹介되었으나, 그 뒤에 발표된 12통(文學思想誌 165호)의 原文은 아직 公開되지 않았으니 다음에 그 順序에 의해서 原文을 밝히기로 한다.

- 第 1信(諺簡의 研究 第1信)
- 第 2信(全 上 第2信)
- 第 3信
- 第 4信(全 上 第3信)
- 第 5信
- 第 6信
- 第 7信(全 上 第4信)
- 第 8信
- 第 9信
- 第10信(全 上 第5信)
- 第11信(全 上 第6信)
- 第12信(全 上 第7信)
- 第13信(全 上 第8信)
- 第14信
- 第15信(全 上 第11信)³⁾
- 第16信(全 上 第9信)
- 第17信(全 上 第10信)
- 第18信(全 上 第12信)
- 第19信(全 上 第13信)
- 第20信(全 上 第14信)
- 第21信(全 上 第15信)
- 第22信(全 上 第16信)

3) 過去에 考證의 잘못으로 《文學思想》과 《諺簡의 研究》에서 9, 10, 11信의 順序가 착오되었음.

第23信

第24信

第25信(全 上 第17信)

第26信

第27信(全 上 第18信)

第28信(全 上 第19信)

第29信

第30信(全 上 第20信)

第31信(全 上 第21信)

第32信

第33信

이상과 같이 《諺簡의 研究》에서 紹介된 21信에 包含되지 않은 第3, 5, 6, 8, 9, 14, 23, 24, 26, 29, 32, 33信 등 총 12信의 原文을 다음에 轉載하기로 한다. 단 理解를 돕기 위하여 ()에 漢字를 적당히 삽입하였다.

第 3 信

(封印)	상 장	근봉
------	-----	----

거번(去番) 글월은 문내 뵈은 듯함으며, 그스이,
 외와 일양들 지내오시옵. 나눈 아직 혼가지오며 아즈마님겨오셔 학증(癰症)으
 로 미령(靡寧)함오시다 함오니 엇더함시옵. 즉시 쇠복(快復)함과 겨오신가 복려
 (伏慮) ㄱ이 업습. 너일 조흔 구경을 만히 함오실 듯함오니 서울 인눈 샤롬은 더
 옥 설각이 아니 나오시개습. 기별함오신 거순 엇디(得) 엇지 함올잇가. 여귀 두
 고 내 문부(文簿)을 함오라 함시면 기드리고 잇스올이니다. 남(藍)은 업셔 다 흰
 (白) 거지라 함오니 여귀셔 남을 드리면 조홀 듯함오마는 뉘고더러 드리라 함개
 습. 기드리를 밧 수가 업습. 녕성모(永生母) 옥(玉) 동곳슨 극품(極品)을 어더
 시니 구전(口錢)이나 만히 먹이라 하얏. 인편(人便)이 급하야 편지 잘 못함오며,
 혼슈(婚需) 말은 즈시 듯고 당홍(唐紅) 삼승(三升)은 저년의도 내여 오지 아니함
 고 술회도 아니 내여 왔다 함오니 이런 낭궤(狼狽)가 잇습. 다홍삼승을 압집의셔
 제년의도 낭궤를 하야 겨오 다른티셔 나(出) 쓰와다 함옵.

무인(戊寅) 스월 초칠(初七)
상 장

第 5 信

(封印)	상 장	근봉
------	-----	----

그스이 왕늬(往來)함는 인편 잇스오나 저의 편지도 못보옵고 나도 못함야스
 오니 설하함옵기 엇지 다 덕습. 날이 증습(蒸濕)함옵기 심하와 장마가 되야 가
 오니,
 뉘오셔 평안들 함오시옵. 념려 브리지 못함오며 대되(大度) 무스들 함온잇
 가. 셔물(署物)이 한창 쉼오니 브되 참외 가튼 것 만이 잠소시개 함옵. 본늬
 (本來) 습도(?) 업느긁 흠이오니 금하리 업시 만넬(兒名)이와 곁어가면 잘 자시라
 일컷습. 나는 접사 슈란(愁亂)함 일 만스오니 답하함옵. 만넬 혼인(婚姻)은 동
 지달노 정하야시니 기특함오며, 압퉁의셔 둘째 어마님겨오셔 중환(腫患)으로 대

단호하시더니 조금 낮조하시나 마히 넘려하야더니 다힘이오며, 평동(平洞) 누의님도 미령(靡寧) 지내오시더니 요스이는 또 낮조하시고, 난동 조집(趙室)이 회증(廻症)쳐로 병이 십분(十分) 지리하야 즉근 십여일의 집증(執症)을 못하오니 이런 답하올터 업습. 슈란(愁亂) 이만 그치옵. 녕생모(永生母)의게는 편지 못하오니 후편(後便) 하올이다.

무인(戊寅) 녹월 초사일 상장(上狀)

第 6 信

상 장

(封印)		근봉
------	--	----

이 동안은 오락 소식(消息)이 업스오니 답하 넘려(念慮) 브리지 못하오며, 그 스이 엇지 편치 못하야 지나시나 하오니 어둡을 그리 알아 지내와습. 본증(本症) 이나 아니 올년가 넘려 측량 업습. 만념(萬念)이 극심하옵. 외와 일양(一樣) 평안하시옵.

아바님겨오셔는 셔후(暑後)는 쉼(快)히 낮조하시고 세재 진사(進士)는 이각(離却)이나 하야습. 외오셔 이리 동々(懂懂)흔 넘려(念慮) 측량(測量) 업습. 셔모(庶母)는 마히 알아 지내야다 하오니 종々(種々) 념(念)이오며 아히들은 탈 업시 잇습. 나는 혼자 제사 지내오니 셔로와 망극지통(罔極之痛) 엇지나 덕습. 둘째 누의님도 드러오시고 병중(病中) 차동(茶洞)셔도 드러와 모히여 지내와시나 거셔 멀이 거시니 결연(缺然)하기 2이 업습. 집안은 대되(大度) 무양(無恙)하고 나는 셔감(暑感)이 긴(緊)하더니 또 조금 낮습. 온양(溫陽) 편지 와기 보내오며 대되 일양이오신가 보오니 다힘이옵. 제셔는 편지하는 거슬 못보오니 엇진 일이옵. 충々(恕々) 이만 덕습.

칠월 칠일 상장

第 8 信

상 장

(封印)		근봉
------	--	----

저번 인편의
글월 보옵고 든々하오며 그스이 날포되오니,
외와 평안들 하오시옵 념(念)이오며, 친후(親候) 또 치통(齒痛)으로 미령(靡寧)

호오시다 호오니, 그 동안은 꽤(快)히 낮즈오시고 순력(巡歷)은 어너 켜 나시는
고 넘려 측량 업스오며, 나는 제소(祭祀) 지격(至隔) 호시니 새로히 감모(感慕)
가이 업스오며, 제스떡가 되옵도록 주부(主婦)가 업시 지니오니 민망스호옵. 제
서는 편이 이셔 이런 생각도 아니 호오시고 겨오신 일 도로혀 웃습. 삭예돈(朔月
錢)은 쑤어 쓰오시고 어너 켜의 갑홀시라 호옵. 갑호시거든 날변리(日邊利)를 호
야 갑게 호옵. 주머이(니) 가음은 이편의 미쳐 못보오니 이후 인편의 즉시 보
너올이리다. 나는 길은 가라다 못가옵고 이리 민망호옵. 아직도 귀한(期限)이 업
서 조흔 귀경도 못호고 더욱 이리 답스호옵. 겨오 이리 그리오며 서모(庶母)의게
각서(各書) 못호옵.

관월 초오일 정희(正喜)

第 9 信

내아(內衙)입납 (封印) (군봉)
장동본가답상장

방즈 도라 오옵네편
 덕스오시니 보옵고 든스호오며 그스이 년호야
 되오셔 일양(一樣) 호오시옵. 순력(巡歷)이 드러오와 겨오실 거시오니 안령이
 판차(還次) 호오신가 넘려 브리옵지 못호오며, 녕중(營中) 대쇼(大小) 다 일향(一
 向) 무스들 호옵. 념일(念日) 켜스 지나오시니 년々(年々)이 와오셔 망극지통(罔
 極之痛) 더욱 ㄱ이 업스오며, 제서는 우연이 내려가셔 참사(參祀)을 호오시니 날
 이여서 낮습. 나는 대되(大度) | 큰 년고(緣故)는 업습고, 시소(時祀)는 박림(迫
 臨) 호오시고 스々(事々) 민련(憫憐) 호온 일 만습. 제서 갖튼 스세(事勢)가 그
 러호을 밧 엇지 몬져 오개습. 내가 내려가라 호옵더니 이리 천연(遷延) 호야 말이
 아니되옵. 옷은 즈시 바다 입개스오며 셔울셔 옷을줄 모르고 통치막 호나을 장만
 호야더니 돌이 되오니 다힘이옵. 들재뵈 요전 일은 즉시 분별호야. 주을 이리나,
 삼승주머(니) 가음은 삼승이 무명 놀기의 극귀호야 거위(이) 절종(絶種)이나 다
 르지 아니호고, 잇는 거시 고약호야 주머호지 못호을 듯호옵기 그스이 못어더 보
 너와습. 그러나 급스호노라면 금명(今明) 또 인편(人便) 잇스오니 샤보내 올니
 리다. 세목(細木) 두필을 어더스오니, 제서가 오시면 가을의 겹갓가튼 거시나 호
 야 입으면 조홀 거슬 아직 두어시니 미련이들 못호야 입습. 총사 이만 그치옵.
 다튼더 차마 쓰기 어려워 못호오니 이말 던 호옵. 황휘(黃州) 명지는 온가호옵

고도 아니오니 이리 민망함.

관월 회일(晦日) 상장

第 14 信

(封印)	본가 즉년(即傳)	元春(手決)
	기척(箕冊) 상장	(근봉)

이리 오온 후(後) 날로되오니 대퇴(大度) 일양들 지내오시고 어린 아히도 잘
잇습는가. 녀러 더욱 동々 호으며, 오날은 압택(前宅) 생진(生辰)이오시니 외오서
경축(慶祝) 호으며, 나는 길의도 잘 내려와스오니 다행이옵고, 친후(親候)도 여
러 천니(千里)의 씨치이오시나 조금도 관견(關緊)치 아니 호오시니 다행이오며, 나
도 아직은 병노 탈업지니 깃부옵. 두분 아즈마님겨오셔 심늑일로 썩보라 호오시
니 모리어 잇습다가 문져 가오시니 항결(恨缺) 호으며 여러 퇴의도 일양이옵. 영
춘(永春) 아즈마님겨오셔는 내려가오신잇가. 민성(閔姓)의 승중(承重)은 촉혹 호
오며, 석보(人名)의 집 역질(疫疾)은 잘 흔가 호옵. 고령택(高靈宅) 자근 족장(族
丈)이 또 와서 야단을 혼다 호오나 그스이 엇지 되여습. 이리 동々 호으며 경직
(聽直)들의 작실이 슈직(守直)을 식이시옵. 냇(書)의는 사량(舍廊)을 모도 잠으
고 떠나지를 말고 기다려 응변(應變)을 호라 호옵. 녀(人名)의게도 이리 이르옵.
내 가복(加卜) 도포(道袍)을 호야 용타 호오니 엇지면 조홀자, 뵈(布)가 업스울
듯 호오니 어디셔 어들가 호나 이리 답々 호옵. 흥々 이만 덕습.

화기(畫器)을 조금 구하라 호오니 슬모 조홀 것 수종(數種) 즈시 기별 호옵.
기축 스월 십삼일 상장

第 23 信

(封印)	상 장
------	-----

한(人名) 울나간 후 삼하(三夏)가 다 지나되 쇼석이 인(因) 호야 막히오니 답
々단 말은 군말이옵. 하절이 다 진(盡) 호고 입추(立秋)가 되오니 요스이 범절(凡
節)이 엇더 호시옵. 경향(京鄉)의셔들 대퇴(大度) 일양 평안 호옵. 강동(江東)은
너름을 엇지 낫습. 흥々 녀러 원이오며 거셔는 본병환(本病患)이나 즈로 나지 아
니 호야 겨시압. 그스이 춘동(茶洞) 회갑(回甲)이 지너시니, 천니 휘위의 이런 경

리(情理) 업습고 소식도 갈 길이 업스오니 혼세상(一世上)이 아니온 듯함. 의복은 엇지나 해야 보녀어습. 그날 여러 누의님나 뵈이여 지너지다 함. 나는 그 학질을 어더 써여다가 또 알코々々하기 여러번해야 석달을 이리 신고(辛苦) 함오니, 즈연 원기(元氣)는 지치고 먹지 못하고 소성(蘇醒)이 중시 되지 못함오니, 북풍(北風)이나 하면 조금 낮고 먹기 나온 뒤는 소성도 될 듯함오니 간대로 관겨(關係)함울잇가. 서울서 내려온 장맛시 다 쇼곰 땃치 푸여 쓰고 싸서 갖득 흰 비위(脾胃)을 덩치 못함오니 일시가 민망함. 경향(京鄕)의 장이 엇지 되여습는지 속편(速便)을 어더 내려 보녀어야 견타개습. 서울서 진장(陳醬) 살 도리(道理)이 시면 다쇼간(多少間) 사보내개 해야 주습. 변치 아니흔 진장은 어더 보내여 부질업습. 거기 윤생(尹生)의개 진장이 요스이도 잇난지 무러보습. 민어를 연하고 므름흔 거스로 갈의여 싸서 보녀개 함. 내려온 거슨 살이 셔여 먹을 길이 업습 더니다. 겨즌는 맛논 것 이실거지니 녀사히 어더 보녀압. 밧그로도 괴별함아습. 가을 후의 조흔 거서로 소오접이 되나 못되나 선편의 부치고, 어란(魚卵)도 거괴서 먹을 만흔 것 구해야 보녀습. 겨요 두어즌 이리 덕스오니 대강 보오시고 괴별 의라도 설각해야 함개 함.

신축(辛丑) 녹월 녀이일(念二日) 상장(上狀)

第 24 信

상 장	
(封印)	근봉

삼하(三夏)을 인(因)해야 소식 막히오니 나중은 이저바리고 설각도 아니함업던 츀(次)의, 강경(江景)이 선편(船便)의 오월 망간(望間) 부치신 글월 보습고 든사 개위(開胃)함습기 더욱 다르오나, 창녕(昌寧)도 학질(瘧疾)로 알고 이천택(利川宅)의셔도 대단히 편치 못함오니 놀나온 녀너 축냥 업습. 그스이 학질도 이각(離却)이 되고 형님 병환도 낫즈오신가 이리 동々(懂々)함습고, 게셔는 과하(過夏)을 엇지나 해야 지내오신고 녀너 가지사 경々(哽々)함오이다. 나도 또 학질을 어더 석달을 가지고 틀기더니 요스이는 조금 낫즈오니, 원기(元氣)도 즈연(自然) 락(敗)함오니 차々 낫즈와 가오니 김히 녀려는 홀거지 아니오니 과히 위쓰지 마습. 초생(初生)의 년(年)와 생진(生辰)날과 제스(祭祀) 지내오시니, 외오셔 망극지통 더욱 원박(冤迫)함습고 제스는 엇지나 해야 지내와습. 잇씨의 향똥(鄕中)은 더욱 제품(祭品)이 무론(毋論) 어육(魚肉) 과품(果品)함고 다 어려울 듯 함오니, 그런 설각을 함울수록 더욱 죄(罪)롭기 축냥해야 이틀 길이 업습. 차동(茶洞) 회갑(回甲)의는 엇지야 지내오시고 형대분(兄弟分)이나 무(母)

히여 겨오시던가 일컷조오며, 천니(千里) 밧과 이런 정니(情理) 어딴 잇습. 이번의 보내오신 촌물은 여슈(如數)이 와습. 민석어(石魚)의 약간 두상(頭傷) 잇스오나 못먹게 되지 아니하와, 병구(病口)의 조금 개위(開胃)가 되오며, 어란(魚卵)도 성히 와서 썩(快)히 입맛시 붓치오니 다힘이옵. 이번의 온 진샹(陳醬)이 집의 것시옵. 중시(終始) 조금 맛시 과하야 쓴맛시 나고 단맛시 업스오니, 그전은 장이면 장으로 만근 거시 다 그러하야 먹을 길이 어렵스오니, 서울도 그말 하야거이(니)와 조금 단맛 잇는 지령을 살지라도, 조금 어더 보내개 하옵. 빅자(栢子)와 호도(胡桃)가 여긔는 업는 거시오니 어더 보내개 하옵고, 조흔 곳감이 거기서는 엇기 어렵지 아니 하옵 듯하오니 비전의 스오점 어더 보내야 줘옵. 휘쇼(咳嗽)의는 락양(每樣) 구급(救急)이 되기 이리 괴별하오며, 울회도 짐치와 젃무우 하야 부치개 하옵. 짐치는 그리 아니면 삼동(三冬)을 어더 먹지 못하오니 아조 보낼 그릇식 담아 보내개 하옵더니 썩나면 또 변하옵. 인편도 총사(忽々)하야 거요 그리옵. 설각지 못하는 것 설각하오서 그별의라도 설각하옵.이민(鯉民) 어란(魚卵)이 그 즘음서는 종사 나는 거시오니 년하야 구하야 보옵.

신득(辛丑) 칠월 십이일 상장

第 26 信

신년(新年)의 대되(大度) 일양(一樣) 평선(平善)히 지너오시옵. 지월간(至月間) 대단이 편치 아니하야 지너와 겨오신가 보오니, 즉금(即今)은 지나온 일이오나 경념(驚念) 측량(測量) 업습고 그후 썩(快)히 쇼건(消去)하야 범절이 평안 하오시옵. 동々(憧々)흔 녀너(念慮) 엇지 다 형용 하올잇가. 아들(子)을 완정(完定)하와 종묘(宗祖) 의탁(依托)이 되옵고, 우리가 근육십(近六十)의 부모(父母) 말을 드르니 문호(門戶)의 이런 경사(慶事) 어딴 잇습. 아직 보지 못하야스오나 보나답지 아니하게 듯습고, 이리 궁박(窮迫)히 된 썩(時) 이런 대사(大事)가 순성(順成)하옵고, 일(事) 무비도선(無非祖先)이 음우(陰佑)하오시고 천심(天心)이 회화(誨化)하오시는 일갓스와, 더욱 일변(一邊) 견축(見逐)하고 일변 공구(兢懼)하와 혼가지로 안즌 엇지 못하는 일 섭사하오나, 이런 스정(事情)은 오히려 둘째 올쇼이다. 며느리는 아직 다려오지 못하온가 보오니 스세(事勢)가 그러하올 듯하오나 굶사하오며 도모지 문운(門運)의 달인 일이오나, 던(專)혀 교도(教導)하기의 잇스오니 막음이 가지사 동々경々(憧々憬々)하옵. 세전(歲前)인편(人便)잇스오나 게서 편지 못하오니 섭사 결년(缺然)하옵. 그리 구지 하오실 것 잇습. 새로 아학을 다리고 과세(過歲)을 하오시니 집안이 충영(充盈)흔 듯하오시리.요々(遙々)히 일컷습고 거서가 인근야 만복(晚福)을 누리야시는가 이리 또 일컷습. 경향(京

鄉)의서들 대되 평길(平吉)하옵고 강동(江東)은 요사이 엇더하옵. 요통(腰痛)으로 년(連)하야 성흔 날이 덕은가 보오니 실(實)노 념려(念慮) 브리울 길 업사오니다. 나는 신구세(新舊歲)에 별(別)노 가감이 업시 먹고 자고 무스(無事) 무려(無慮)흔 사롬쳐로 지너오니 엇지 이땃 지완(遲緩)하온고 하오며, 강경(江景)이 바편(船便)의 글월은 보옵고 보너오신 찬뉴(饑類)들은 슈대로 즈시 밧다 괴별하신티로 먹소오니, 서울 맛시라 비위가 열니오나 이러하게 하야다가 켌니(千里)밧괴서 구복(口復)을 위하야 하옵는 일이 도로혀 어분(於分)의 과하옵. 침척도 그리 변미가 되지 (안)하와, 침척을 순전 못어더 먹더니 이리 먹소오니, 먹기논 먹으나 그져 과(過)흔 듯하옵. 의복(衣服) 온 것도 즈시 바다습. 서울서 보던 세초선(歲抄船)의 부친 찬수(饑羞)도 이번은 그리 버린 것 업시 두고 먹게습. 늬이 어린 것 경증(驚症) 민망하옵. 요사이는 잘 잇습. 방스(房舍)을 변통하야사 되들 엇지 하옵. 편지을 여러장 쓰니 덩신이 다 맞지 못하와 이만 대강 그리옵.언제나 석히 소식(消息) 들을지 々당(指定) 어렵습.

임인(壬寅) 원월(元月) 초십일 상장(上狀)

第 29 信

(封印)	상 장	근봉
------	-----	----

경득(奴名)편(便)과 경호(奴名)편의 년(連)하야 덕사오시니 보옵고 든사하오나, 이일학(二日瘧)으로 미령(廳寧)이 지내신다 하오니 놀납고 념려 측량 업습. 그져 학질(瘧疾)이라도 게서 근력(筋力)의 견터기 어려울디, 하물며 이증(此症)은 졸연 이각(離却)이 어렵스을 거시오니 엇지 이괴여 갈가 보옵. 편지하실 적의 엇지 제적날 감세(減勢)가 잇다 하오시니 그 후(後) 또 엇더하오시옵. 각색(各色)으로 념려 동々(撞々)하와 일시도 브리울 길이 업습. 졸연(卒然)이 소식도 듯지 못하을 터이오니 위가 엇지 아니 쓰이옵. 이 동안은 범절(凡節)이 엇더하시고 즈시 이각이 되여습는가 요사히 심려만 되옵. 이대도 겨을 되오니 대되(大度) 일양(一樣)들 지너옵고 게서 쉐(快)히 나오신 소식 일야(日夜)로 기다리옵. 나는 별큰달 업시 잇소오나 홀연 피풍(皮風)이 발(發)하야 형체(形體)의 아니 난터 업서 쇼양(搔痒)이 대단하야 밤의 잠을 못자고 이리 신고(辛苦)하오니, 글노 무슨 념려 잇는 병은 아니나 몸의만 괴롭기 못견터개소오니, 오십(五十)여년의 알아 못본 병을 다 알노라고 이리 격그란 일이오니 엇지 할가 보옵. 아손(兒孫)의 우환들은 그만치 낫다 하니 다힘이오며 경향(京鄉)의 여러곳 다 일향(一向) 무양(無

恙)들 ㅎ다 ㅎ옵. 면々(綿々)히 경々(硬々)ㅎ오며 경득(庚得)편 보낸 의복과 찬슈(饑羞)는 일々히 바다 이십일이 못되어 온 거시오니 별노 상(傷)흔 것 업습고 죠히 먹습. 너괴는 즉금(即今)가지 쇼음(綿) 것슬 석 입지 못ㅎ오니, 아마도 이번 온 옷시 죠곰 듯거워 그더로 입기 어렵스을 듯 ㅎ옵. 봄 인편의는 바지을 석 알게 ㅎ야 보내게 ㅎ옵. 너괴 잇는 누비바지가 다 명지 것시오니. 명지바지 참아 입기 어려워 겹바지을 썬 입어스오니, 별노 누비것 또 홀 도리는 업고 얇은 쇼음 혼벌을 누비것쳐로 무명바지의 두어 ㅎ나 ㅎ야 보내오면 막음 편히 입개습. 찬슈(饑羞)는 아직 그만 ㅎ면 아니 먹습. 요사이는 날이 치운 썬오니 고기만도 여름과 다르와 엇지 어더 보오며, 지령(醬油)도 담은것 맛시 먹게 되어 과동(過冬)은 넘려 업개습. 제일 기름이 극귀(極貴)ㅎ오니 혹 선편(船便)의 기름을 미양(每樣) 어더 보내기 바라옵. 아히는 셔산(瑞山) 갖다 ㅎ더니 즉시 도라와습. 둥계(仲季)는 팔절여 구어도 단々ㅎ니 익돌습. 갑쇠(甲金)를 받고와 보내고 시부터 과년(過年) 보내고는 아쇠온 일 만스와 경득(庚得)을 도로 보내옵만는 넘려는 무궁 ㅎ옵. 비통(臂痛) 일양 심(甚)ㅎ야 거요 그리옵.

임인(壬寅) 십월 초삼일 상장

第 32 信

곤전(坤殿) 승하(昇遐)는 무슴 말슴들을 ㅎ리. 천니(千里) 회외의 더욱 망극(罔極)홀 뿐이로다. 하츄(夏秋) 이후로 왕넉가 막혀여 일절(一切) 쇼식 들을 길 이 업더니, 하인(下人) 오논터 편지들 보고 대되(大度) | 어린 것들 ㅎ고 일양 지 너는 일 다힘이며, 쇼상(小祥)이 격월(隔月) ㅎ나 의례(依禮)이 지너지 못ㅎ니 더욱 비결(悲缺) ㅎ다. 강동(江東)은 그 스이 내려와 지너는가. 범빅들이 서울 갖지 못홀 거시니 이리 동々(懂々) ㅎ다. 나도 비통(臂痛)과 담체(痰滯)로 먹지 못ㅎ기 종시(終是) 썬(快)치 아니 ㅎ니 민망 ㅎ다. 회편(回便)의 두어즈 이리 그리니 청과 퇴(靑坡宅)의 각장(各狀) 못 ㅎ니 홀기 보아라.

계묘(癸卯) 십월 초십일 구(舅)

第 33 信

(封印)	며느리	봉
------	-----	---

본성(本生) 존고(尊姑) 상변(喪變)은 통곡 밧 모습 말을 하리. 주년지간(周年之間)의 두곳으로 상소를 당하키 남의 업는 정니(情理)로 붕통초절(崩痛焦切)하키 오작하랴. 비렴(悲念) ㄱ이 업스며 즉시 분곡(奔哭)도 못하야 실듯하니 더욱 결핍(缺纒)하랴 일컫는다. 대상(大祥) 담제(禫祭) 지나씨나 네의 내외는 또 변례(變禮)을 당하야 여례(如禮)히 지내지도 못하고 정경(情景)이 보는 듯하다. 그스 이 순산(順産)을 하고 아들을 나하따 하니, 종손(宗孫)의 경스 우리집의 처음으로 보니 도종(祖宗)이 권우(眷佑)하신 듯, 네 몸의 와서 저리 유공유복(有功有福)하야 종석(宗祚)의 광채(光彩)가 되니 문운(門運)이 촌촌 열너 가는 듯, 원외(遠外)의서 더욱 경림(慶幸)하코 오히려 즉시 보지 못하는 것은 궁금하나 엇지 하리. 아히 설긴 거시 비범하다 하니 믿음의 더고나 구지 든々하다. 아히 나기를 납월(臘月) 그믐날이라 하니, 그날이 천은(天恩) 상길일(上吉日)이니 그도 우연치 아니하야 실가(生家) 선친(先親)이 천은일(天恩日) 나오서 소명(小名)가지 은죽(恩字)을 너히 지어 겨오시더니, 이 아히가 또 이러하니 아니 괴이(奇異) 신통(神通)하온 일이나. 일흠을 천은(天恩)이라 지어 보내니 그리 불너라. 봄이 다 되고 날이 창화(暢和)하니 산후(産後) 범절(凡節)이 무양(無恙)하코 어린것 년하야 잘 잇노야. 부덕 조심々々하야 기르게 하야라. 나는 구창(口瘡)으로 오락 신키(辛苦)하니 민망하다. 겨요 그린다.

갑진(甲辰) 삼월 초륙일 구(舅)

II. 諺簡에 投影된 人間 秋史

秋史 金正喜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조하는 이 즈음이지만, 사실 그의 學問과 藝術面에만 국한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들의 바탕이 되는 人間面의 고찰이 등한시됨은 앞뒤가 뒤바뀐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그의 人間診斷을 시도하려는 바, 그의 書簡文 중에서도 특히 한글편지를 중요시한다.

모든 문장은 작자의 표현이라고 하지만 서간문은 가장 진솔한 것이다. 그래서 서간문은 文學의 原型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의 文集을 보면 漢文書簡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는 마치 편지를 쓰기 위하여 일생을 살았다고도 할 만큼 많은 편지를 썼다. 다행하게도 한글편지가 33통이나 현존하고 있는 바 《文學思想》을 통해서 世間에 다 공개하였다.

本稿에서 秋史의 人間面을 고찰하는데 한글편지를 우선해서 대상자료로 삼는 의의는, 한자서간보다도 韓國人의 心意를 보다 사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문자적 기능면에 있는 것이다. 더구나 33통이 다 秋史가 쓴 親筆이니 그 자료적 엄밀성은 말해 무엇하랴.

33통 중에 31통이 그 夫人에게 쓴 것이고, 2통은 子婦에게 쓴 것이며, 시기로 보아서는 33세의 少時로부터 59세의 老境에까지 걸쳐 있다. 그 중에 13통은 제주도 유배 중에 쓴 것이니 극한 상황에서 주고 받은 夫婦間의 辭緣은 人生의 機微를 찌른 것이다.

다음에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그의 人間性을 추출하려는 바, 먼저 性格學的 方法으로 그의 體質의 특성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性格을 분석하고, 가정과 사회에의 인간관계가 대상의 편지 속에서 여하히 표출하였는가를 고증하려고 한다.

다만 상술한 대상 자료가 夫婦間·舅婦間이란 한계성이 있는 까닭에 그에서도 출된 결과도 한계성이 있음을 전제로 해둔다.

1. 大膽剛直한 太陰人

四象醫學상으로 太陰人の 체질과 성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⁴⁾

체격과 체질적으로 상체가 크고 근육이 풍부하고 골격이 굵으며 외모는 장대한 편이다. 내부 구조면으로는 肺小肝大하고 胃剛腸弱의 체질이다. 결과적으로 식욕은 강하나 과식하면 소화가 뒤따르지 못한다. 폐가 약하니 호흡기가 약하고 간이 전장하니 혈색건강은 양호하다.

이런 체질에서 마련된 성격은 대담 강직한데 내심으로 야망이 있으나, 일견 陰凶할 정도로 외부로 표시를 자제하니 무뚝뚝하고 따라서 思惟能力이 강하다. 그러나, 항상 지배지향적이고 억압당함을 참지 못하고 외부로 불평이 표출하여 太剛則折이란 말과 같이 인간관계에서 불리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정치가, 학자적 소질을 갖는다고 보나 여건이 불리하면 화를 당하기 쉽다. 의학상으로는 폐·기관지·장·피부·모발 관계의 질환에 걸리기 쉽다.

그의 편지 속에서 위와 같은 경향이 다분히 발견되니 「太陰人」으로 규정된다.

「...나는 천니(千里)을 무스(無事)이 오와 또 천니 대희(大海)을 거월(去月)이십 칠일의 하로너의 쉬이 건너오니 무비왕녕(無非王靈)이오나, 선동(船中)샤롬 다 슈질(水疾)하야 정신을 일러 종일(終日)을 끌어 지내온디, 나 혼자 슈질도 아니하야 선상(船上)의 종일 당풍(當風)하야 안저 의전(依前)이 밥도 잘 먹고, 그 전의 년(連)하야 물마리를 먹고 오더니, 선상의셔 된(되)인 밥을 명시와 갖치 먹스오니 그도 아니 고이하옵……」[제19신]⁵⁾

이 편지는 秋史가 제주에 귀양살이로 도착한 직후에 禮山의 부인에게 쓴 것

4) 鄭成忠: “四象體質 鑑制에 對한 客觀的 研究”, 《醫林》 151號.

李乙浩: “四象醫學說 批判”, 《大韓漢醫學會報》, 1965.

夫友順: “四象醫學과 體質”, 《醫藥情報》

5) 《文學思想》 18信, 《諺簡의 研究》 第13信.

《阮堂集》 漢文書簡中 〈與舍仲〉이란 편지가 동생 命喜에게 쓴 것인데 이 19信과 同時에 보낸 漢文편지임.

이다. 당시에 제주도에 가는 천리 해로는 죽음의 길이었다. 풍랑을 만나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 험로이다. 그런데, 海南을 출발하여 당일에 도착을 했다. 모든 선인들이 배멀미를 앓아 정신을 못차리는데 秋史는 태연자약하여 평시와 같았다고 한다. 이 내용은 동생 命喜에게 보낸 한문편지에도 있는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신화로 여길 만큼 秋史의 대담성은 세상에 알려져 있다.

「...조흔 곳감이 거괴셔는 엇기 어렵지 아니 ㅎ을 듯ㅎ오니 ㅅㅅ의 ㅅ오접 어더 보내야 ㅅㅅ. ㅎㅅ(咳嗽)의는 ㅅㅅ(每樣) 구급(救急)이 되기 이리 괴별ㅎ 으며 울회도 짐척와 젓무우 ㅎ야 부치게 ㅎㅅ……」[제24신]⁶⁾

「...홀연 피풍(皮風)이 발ㅎ야 형체(形體)의 아니 난터 업서 쇼양(擻痒)이 대 단ㅎ야 밤의 잠을 못자고 이리 신고(辛苦)ㅎ오니 글노 무슨 넘려 잇는 병은 아 니나……오십(五十) 여년의 알아 못본 병을 다 앓노라고 이리 겪으란 일이로… …」[제29신]⁷⁾

위 편지들도 다 제주도에 부인에게 보낸 것인데 해소증과 피풍으로 고생하는 사연이다. 그 밖의 편지에 보면 담체(痰滯)·소화불량 등 태음체질에 있는 병들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의 폐소간대하고 위강장약한 체질과 강직대담한 태음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거니와, 그의 영정과 초상화 기타 문헌을 아울러 볼 때 필자의 진단은 입증된 셈이다. 다음에 이어 살펴보는 그의 인간면을 포착하는데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2. 理智와 情感의 共有者

사물에 대해서 침착, 대담, 자제, 고집성이 있으니 그는 소시부터 갖은 과란을 넘어서 학문과 정치에 대단히 성공을 하였다. 그것이 다 이지를 바탕으로 형성된 성격이다. 그러나, 태음인의 이지성은 한계점이 있다.

어느 한계선을 넘어서 강박과 억압을 당하면 그 때는 참지를 못하고 폭발을

6) 《文學思想》第29信.

7) 《文學思想》第31信.

해서 반항을 하게 된다.

秋史가 失脚과 유배를 당한 것은 안동김씨가 조작한 정치극에 의한 것이지만, 秋史가 조금이라도 그들과 타협을 하고 머리를 숙였다라면 그토록은 미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무한한 이지를 사수한 까닭에 전후 11년 동안의 유배를 강요 받은 것이다.

그의 예술도 태연자약한 이지의 승화에서 온 것이다. 「秋史體」를 형성한 가시와 힘은 바로 그 이지의 형상화이다.

편지마다 음식 타령, 옷 타령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괴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도 이지의 變容이다.

물론 사물에 있어서 극과 극은 상통하는 법이다. 秋史의 이지가 고고하고 강직한 반면에 따뜻하고 자상하고 섬세한 정감이 동반하였다. 강자와 上층에 대해서는 끝끝내 이지로 대하지마는 약자와 下층에 대해서, 또 순백한 자연과 미물에 대해서는 순풍같은 정감으로 처신하였다.

이에 관해서 그의 편지의 실례는 새삼 예거할 필요가 없으니 생략을 한다.

3. 孝誠과 慈愛의 宗孫

秋史는 어려서 백부인 魯永에게 입양하여 경주 김문 月城尉, 金漢蠶(英祖의 들째 駙馬)의 奉祀孫이 되었으나 양부모가 일찌기 별세하자, 멀리 古今島·大邱·平壤監營까지 내려가서 생부 魯敬을 몸소 시봉하였으며, 때로는 부인 이씨와 교대를 하면서 봉양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사랑의 동청직(洞廳直)들이 떠나지 아니 하고 고 있다 하고. 일념이 노회지 아니 하고며 나는 오력간만의 되시고 지내니 든든 깃부기 엇지 다 덕스옵.»
[제1신]⁸⁾

「...날이 스월(四月)이라 업시 이리 칩스오니 뵈와 일양들 하고시옵. 아바님 겨오셔 감후(感候)로 미령(靡寧) 하고시다 하고니 엇더하고신지, 즉시 평복(平復) 하고시고 제절(諸節)이 일양(一樣)이오신지 외오셔 초조(焦燥) ㄹ이 업습.»
[제2신]⁹⁾

8) 《文學思想》第1信, 《諺簡의 研究》第1信.

9) 《文學思想》第11信, 《諺簡의 研究》第2信.

전자의 경우는 생부 魯敬이 慶尙監司로 있을 때 大邱監營에 내려가 있으면서 서울 壯洞本家에 있는 부인에게 쓴 것이고, 후자는 반대로 부인이 교대해서 大邱에 가 있을 때, 秋史가 서울서 부인에게 쓴 것이다.

「...여기는 친후(親候) 미령(靡寧)하오며 나는 삼일경이나 가다가 도로와 시탕중(侍湯中) 지내오니, 요사이는 계절이 마히 낮즈되시니 멀니의 놀남습던 이와는 다힘하오며, 오늘은 강인(強忍)하와 쇼세(掃洗)가지 하야보라 하오시오니 경힉(慶幸)하오니다. [제15신]¹⁰⁾

이 편지는 戊子年(1828) 11월에 평양감사로 가 있는 魯敬의 病看護를 위해서 秋史가 그 곳에 가서 쓴 편지이다.

「...나는 오늘 제스(祭祀) 격야(隔夜)하오시니 새로히 망극지통(罔極之痛)엇지 다 하올잇가. 제스는 겨요 차려 지내오나 스스민망(事々憫憫)하온 일이 만스오니 이리 민연(憫然)하옵……」[제7신]¹¹⁾

「...또 듯즈오니 외동(外洞) 환후(患候) 마히 비경(非輕)하오셔 전인(專人)이 와습노가 하오니 넘너 ㄱ이 업스오며, 무슴 증후(症候)로 그러하오신가 더욱 경사(慶々)하와 하오며, 외오셔 오작 심너초박(心慮焦迫)하오실잇가.」[제14신]¹²⁾

전자는 부인이 대구에 가 있는 동안 서울에서 생부 魯敬의 제사를 혼자 지내게 되니, 종부도 없이 제사를 모시기가 죄송스럽다는 사연이다.

후자는 秋史가 평양에 머물고 있을 때 서울 부인에게 쓰면서 그의 丈母(부인의 친가가 溫陽, 現 牙山郡 松嶽面 外岩里에 있었음)의 병환을 염려한 사연이다. 더우기 그가 제주도 유배 중에 부모의 제일을 당했을 때는 더욱 망극하였으니 그 하나의 예를 다음에 든다.

「...지난 달 회일(晦日) 제사(祭祀) 지나오시니 철천철지(徹天徹地)호 망극지통(罔極之痛) 더욱 원통운박(怨痛運薄)하야 즉지(即地)의 죽어 모르고 시브오

10) 《文學思想》第16信, 《諺簡의 研究》第11信.

11) 《文學思想》第12信, 《諺簡의 研究》第4信.

12) 《文學思想》第27信.

니, 고금(古今) 천하의 이런 사롭의 정니(情理) 광경(光景)이 어더 잇스올잇가.」[제21신]¹³⁾

이와 같이 秋史는 生·養家의 부모와 장모에게 이르기까지 효성이 지극하였고 조상의 제사를 성심껏 받들었으니 종손의 사명과 의무는 한때도 잊지 않았다.

한편 秋史는 수하를 거느림에 있어서도 자애의 정신이 유달하였다.

「... 아뢰는 두고 불스록 사롭되오미 가잠 괴특 호운가 보오니 일문의 다힘 호옵고, 계서가 만니(晚來)의 효양(孝養)을 바드라 그러 호운가 이리 축슈 호오며, 부조간(父子間) 잇적가지 못보오니 인정이 덩 어렵스오나 오히려 둘째의 일이 오며, 계가 와서 보랴 혼다 호오니 정니(情理)의 고히치 아니 하오나 너(此處)을 엇지 경사(輕々)이 올라 보옵. 즉금 우리가 빅슈지년의 겨요. 저을 어더 노코 천금 만금가치 어로고 고이논터 저을 잇지 여긔 드러보너며 엇지 드리오개 호옵개 습. 제 혼 몸이 또 중난(重難) 호기 우리 두 사롭만 가지고 호을 증식이 올잇가 보옵. 조상(祖上)의 둥(重) 호은 거슬 제몸이 시러 노코 잇스오니, 아모리 부조지의(父子之義)가 둥 호와도 조상의 둥 호은 것과 비교 못 호옵는 거시, 예부터 성현(聖賢)이 질정(叱正) 호야 만세의 범(範)을 드리오신 거시오니, 더고나 혼 일만 생각 호옵고 그리 호을가 보옵. 놚이 만 호야도 오지 못 호옵개 호을 거슬 엇지 저을 경이(輕易)히 오개 호을가 보옵. 계서라도 잡고 말너 이런 도리를 개유(開諭) 호야 이르게 호옵.」[제27신]¹⁴⁾

이는 秋史의 양자 상무(유배온 다음 해에 입양)가 입양한 뒤에 秋史를 상면하러 제주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극구 만류하는 내용이다. 제주의 왕래는 생사의 위험이 있는 것이니 도중 만일의 불행이라도 있을까 염려하는 자정의 표출이다. 부자지의보다도 조상의 양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일의 경우에 조상에 바치는 봉사손이 끊긴다는 철저한 유교 윤리를 준봉하였다. 이와 같이 秋史는 유배생활에서도 종손의 도리를 일시도 저버리지 않았다.

13) 《文學思想》 第6信, 《諺簡의 研究》 第15信.

14) 《文學思想》 第8信, 《諺簡의 研究》 第18信.

4. 敬妻와 愛隣의 선비

秋史는 21세에 한산이씨를 여의고 후취로 예안이씨를 맞이하였다. 생양가를 받들기 위하여 남보다도 더 고생을 시켰고, 자기가 기구한 운명으로 유배를 당했을 때는 부인이 도맡아서 가사를 처리해야만 했다. 이런 부인을 남달리 애중함은 인지상정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봉건시대의 남편의 처신은 현대 상식으로 통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편지마다 부인에 대한 애경심은 놀랍도록 지극하다. 현존 33통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니, 실지로 쓴 부인에 대한 편지는 그 수가 월등 많은 것에 틀림이 없다. 그 사연이 또한 용건만의 전달이 아니고 살뜰한 애경심의 발로이다. 구구절절의 용어에서 깎듯이 존대어를 사용하였으니 그 경처심은 놀라움다.

「...그 증(症)이 돌연(突然) 이각(離却)이 어렵소나 이 동안 가감동정(加減動靜)이 엇더호오시고, 벌서 석달이 너머소니 원기(元氣) 범절(凡節)이 오작편(敗)호와 겨오시라, 이리 외오서 동소 넘어 엇더타 호을 길이 업소오며, 침식범백(寢食凡百)은 엇더호옴. 이 동안은 무슴 약을 즈시며 아조 위석(委席) 호야 지내옴. 간절흔 심려 갈수록 지정(止定)치 못호개습」[제30신]¹⁵⁾

이 편지는 秋史 57세 때 현종 8년 12월 13일에 쓴 것인데 이 날에 마침 그 부인은 축병으로 별세를 하였다. 부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이 편지를 썼다.

그 뒤 5일 뒤에 다시 편지[제31신]¹⁶⁾을 썼다. 혼령이 교감하였는지 아무래도 불안하여 또 편지를 썼으리라. 부인의 부고를 받은 것은 이듬해 정월 15일이었으니 사후 27일만에 흉보를 받은 秋史는 그 애통의 심정을 <夫人禮安李氏哀逝文>에 담았으니 예산 후손가에 지금도 전하고 있다. 이 뒤에 쓴 편지로는 자부에게 쓴 것이 2통이 전할 따름이다.

그는 부인에게만이 아니고 連袂戚黨間과 이웃 사람들에게도 항상 안부를 넣었고, 심지어 종들에게까지 자정을 아끼지 않았다.

부인에게 쓴 최후의 편지 일부를 다음에 옮기고, 그 끝에 종 갑쇠(甲金)를

15) 《文學思想》第21信, 《諺簡의 研究》第20信.

16) 《文學思想》第10信, 《諺簡의 研究》第21信.

육지로 보내면서 시지를 향하는 증놈에 대한 애련한 심정을 엿보고자 한다.

「...이슬이 년하야 병환을 예지 못호오시고 일야진퇴(日夜進退)호시나 보오니
발서 여러 달을 미류(彌留)호오며 근력 범박이 오작호와 겨오시개습.갑죄
을 아니 보너을 길 업서 이리 보너오나 그 가논 모양 좀측호오니 격동의 또 일
층 심회를 덩치 못호개습.»[제31신]¹⁷⁾

Ⅲ. 結 語

위에서 4항목에 걸쳐서 秋史의 人間面을 診斷하였거니와 太陰人的인 體質에서 나타나는 大膽剛直하고 理智와 情感을 共有하는 완벽한 人間像을 볼 수 있다. 생활면에 있어서는 敬妻와 愛隣의 선비이며 孝誠과 慈愛로운 宗孫으로 儒敎倫理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의 實學的인 學問과 藝術은 이런 人間性에 바탕한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正喜：《阮堂先生全集》
李仁模：《文體論》東華文化社，1961.
金一根：《諺簡의 研究》，建大出版部，1986.
梁淳秘·金順澤編：《濟州文化의 再照明》，도서출판 一念，1986.
金一根：《文學思想》제76, 114, 115, 165號
_____： “諺簡에 나타난 秋史의 人間面 考察”，《省谷論叢》14집.
梁淳秘：“朝鮮朝 流配文學 研究：濟州島를 중심으로”，建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1982.

17) 《文學思想》第10信, 《諺簡의 研究》第21信.